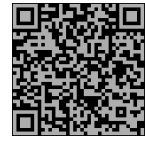


# 올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 편집: 본당 편집회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 부활 제3주일 (2024년 4월 14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루카 24,35-48)



‘빵과 포도주’ 그림: 김옥순 수녀님 (출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루카 24,36)



##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여기를 클릭 / 휴대폰 카메라로 QR Code를 스캔하여 성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 부활 예수 부활하셨네 130

Moderato *p* Monsigny

1. 예 수 부 활 하 셧 네 그 전 에 사 도 께 말 씀  
 2. 우 리 원 수 이 기 사 잔 악 한 죽 음 의 세 력  
 3. 성 부 의 노 푸 시 어 우 리 인 류 잘 못 용 서

하 심 과 같 이 예 수 부 활 하 셧 네 무 덤  
 물 리 치 시 고 우 리 원 수 이 기 사 천 국  
 하 여 주 시 고 성 부 의 노 푸 시 어 우 리

위 비 추 며 오 시 네 용 맹 히 승 전 하 신  
 문 우 리 게 여 시 네  
 인 류 영 생 주 시 네

예 수 여 찬 미 영 광 과 사 랑 드 리 읊 느 니 주 님

부 활 로 생 명 주 시 고 찬 미 찬 송 받 으 읊 소 서

##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루카 24,35-48)

그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35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 해 주었다. 36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7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3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4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41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42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43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44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45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46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47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듣고도 믿지 않았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았을 때 예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데,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A2]
-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AA2]
-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제 마음을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AA2]
-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믿고 신뢰하는 은총의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CT]
- 사순을 보내고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공동체의 봉사자들은 분주해집니다. 그분들의 송고한 봉사료 인해 행복한 미사 전례가 진행됩니다. 봉사자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CT]
- 추호정 안드레아님과 노정아 글리체리아님 가정 축복식에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NV1]
-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느님을 믿고 따를 때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장애물인 돌이 저절로 없어졌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NV2]
- “나타나셨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현실에서 만나는 주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나한테도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미사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NV2]
-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내 고집으로 거부하는 마음을 꾸짖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NV2]
-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저희는 이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청합니다. [RC1]
-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저희는 이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청합니다. [RC3]
- 전출하는 박현택 펠릭스님과 김윤옥 로사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RC3]



- “예수님께서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묵상해 봅니다. [TR4]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변에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선한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TR4]

##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10.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SCAN ME

여기를 클릭 / 휴대폰 카메라로  
QR Code를 스캔하여 성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Keith Routledge

(여성유니슨) *p* D F#m Em A7 D F#m

평 화 를 너 에 게 주 노 라 - 세 상 이 줄 수 없

27 Em A7 G *mf* A F#m Bm *mp* G

는 - 세 상 이 알 수 도 없 는 평 - 화 평-

34 A F#m Bm Em A D

- 화 평 - 화 평 화 를 네 게 주 노 라.

40 (남성) *mp* D F#m Em A7 D F#m

사 랑 을 너 에 게 주 노 라 - 세 상 이 줄 - 수 없 -

47 Em A7 *cresc.* G A F#m Bm *dim.* G

는 - 세 상 이 알 수 도 없 는 사 - 랑 사-

54 A F#m Bm Em A D (간주)

- 랑 사 - 랑 사 랑 을 네 게 주 노 라.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미사에 충실히 참여하기 위한 Venerable Bruno Lanteri 신부님의 제안들

### 신시내티 본당 김호준 시몬 신부님의 사순 특강을 듣고

미사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는데 나는 왜 변하는 것이 없을까, 미사를 통해 나는 성장하고 있을까, 미사에 많이 참여하면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김호준 시몬 신부님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잡이로 Venerable Bruno Lanteri (존자 브루노 란떼리) 신부님이 신학생 시절부터 어떻게 미사에 참여하면 좋을지 묵상하고 실천하며 후에 열매 맺은 경험을 나누어주셨습니다.

먼저 미사의 은총을 이해하기 위해서 7성사의 두 가지 은총, 사효성과 인효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사효성은 성사를 거행하는 그 자체로 은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인효성은 성사의 거행자(신부님) 혹은 참여자(신자)의 정성으로 은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자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은총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후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사와 미사에 대해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받는 은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후자를 조금더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미사를 봉헌해 온 내가 인효적 효력을 노려 미사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은총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미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힌트를 주신 분이 바로 란떼리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첫째, 란떼리 신부님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고 감정을 드리는 것인데, 내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상상력을 동원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내 마음과 감정을 움직여 하느님께 길들여지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즉 인효적인 은총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상상은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이나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조차도 가설을 세우는데에서 시작되는데, 이 가설이 바로 상상력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시몬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저자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상상력은 이성의 판단에 이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이성은 그 위에서 상상력이 퍼 올리는 자료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 가장 낮은 것의 토대와 기초위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상상한다는 것은 가짜, 즉 가상의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상적인 것은 삶에서 도망치려고 할 때 공상하는 것이고, 상상은 삶에 의미 있는 것들을 길어 올리도록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상상과 공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공상은 맹신이 되고 광신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날카로운 논리가 없으면 신앙은 파괴될 수 있는 반면에 합리적인 논증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처럼 미사의 경본을 깊이 묵상하고 상상력을 입히고 삶의 체험을 이에 대입하는 노력이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란떼리 신부님이 하셨던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회의 창시자 로올라의 이냐시오 성인은 수련이라는 책에서 “성경의 내용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라, 너 자신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상상해 보라.”고 하신 것처럼 미사의 경본 깊숙이 우리의 경험을 넣어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을 적극적으로 움직여 인효적인 은총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보세 수도공동체의 창립자인 엔조 비앙키(Enzo Bianchi)는 “말씀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육화(Incarnation)하는 것은 성전(거룩한 전통), 즉 믿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육화해서 들어오는 것은 전통인데, 소통하는 우리가 글자 안에서 육화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이고, 이 성경을 통한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육화(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육화)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는 미사 안에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미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기를 갈망합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미사의 시작 예식, 참회, 독서와 복음, 그리고 성찬의 전례까지 감정이 개입되지도 않고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전에 끝나버립니다.

란떼리 신부님은 미사에서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기를 위해서 미사의 각 부분들을 성경속의 인물과 내용으로 채워 묵상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사에 충실히 참여하기 위한 란떼리 신부님의 제안입니다. 미사에 참여할 때 묵상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미사 전〉

**성당에 들어갈 때.** “나는 (아기) 예수님의 봉헌과 할례를 위해,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갔던 **시메온을 보는 것**을 상상하거나, **다른 열심한 성인을 보는 것**을 상상할 것입니다.”

### 〈미사 중〉

**참회 예절 때.** “나는 세리의 감정들과 마음을 구할(찾을) 것입니다.” (루카 18,9-14)

**대영광송(Gloria) 때.** “나는 천사들의 마음과 감정을 떠올려볼 것입니다.” (루카 2,13-14)

**본기도 (Collect) 때.** “나는 교회에 의해 파견된 대사 같은 마음과 감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의 전례(독서/복음) 때.** “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말씀을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들었는지 떠올려볼 것입니다.”

**사도 신경 때.** “순교자들이 고백했던 믿음의 마음과 감정들을 상상해 볼 것입니다.”

**예물 준비(예물 기도) 때.** “멜키체덱 대사제가 어떤 마음과 감정들로 제사를 지냈는지 떠올려볼 것입니다.” (창세 14,18-20)

**감사송 그리고 거룩하시도다.** “천상 법정에 있는 것처럼”

**성체/성혈 축성.**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들”

**주님의 기도.** “자신의 필요를 간청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들”

**하느님의 어린 양,** “죄인의 마음과 감정들”

**영성체 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들”

**파견 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에서 나는 불을 내뿜으면서 제대를 떠날 것입니다”





## 2024 3월 성경통독 월례모임 탈출기 말씀과 함께



탈출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거쳐 시나이산에 도착하는 과정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항상 의문시했던 것은 왜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가였는데, 이제 와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개념을 제가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탈출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라는 구절에서 요셉은 단지 그 요셉 한 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라고 대표되는 하느님을 섬기는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란 하느님을 모르는 파라오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숭배하지 않는 자는 온갖 것을 숭배하며 하느님의 뜻을 모릅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주변 것들을 숭배하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의 집단이고, 탈출기는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의 억압과 속박 속에서 고통을 받던 이들을 하느님의 강한 손길로 그 억압과 속박에서 꺼내주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손길로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그들이었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 앞에서 그들은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들이 참 어리석게 느껴지고, 하느님이 지금 이끌어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불평불만을 왜 늘어놓지 싶지만,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늘상 듣고 되뇌는 말이지만, 가혹한 현실이 닥쳤을 때 저는 과연 하느님의 뜻대로 행동하였는가... 이 현실이 저를 더 담금질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과제라고 과연 생각했었는가... 싶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뜻이 높고 깊고 넓은 줄 모르고 교만과 거만을 버리지 못하는 저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민족에게 쫓길 때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15장 모세의 노래는 그때의 기쁨을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읽으면서 좀 불편했습니다. 뭐랄까... 쉽게 말해 너무 우리 편과 너의 편을 나누는 느낌이랄까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당연히 알겠으나, 우리의 원수를 쳐부수는 하느님이시라니... 오로지 선이신 하느님께서 원수를 쳐부수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십자군 전쟁처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전부 미개하거나 원수로 보고 개종시키거나 말살시켜야 하는 걸까요? 진정한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의 완성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이웃사랑을 설파하신 신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울하고 가라앉는 저의 마음이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조금이나마 살아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그 분만은 저와 함께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하느님이 전하신 사랑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주변에 베풀며 그분께서 바라시는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글 | 오현정 크리스티나

모세의 출생과 동시에 이집트 공주의 보살핌으로 살았던 궁전에서 40년과 도주하여 살았던 미디안의 삶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여정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했던 남자아이가 이집트 왕궁에서 성장하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일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련을 인식하여 저질렀던 일로 도주하여 보낸 은둔생활 40년도 주님께서 다 마련하여 준비시킨 일이지요. 이 80년 삶의 고통으로 단련되었던 모세의 신앙심을 보시고 주님은 그 앞에 나타나시어 광야에서의 여정 40년을 여십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탈출 3,4)**

**“나는 있는 나다.”(탈출 3,14)**

이 두 문장으로 40년 서막이 열리는 감동입니다. 더 이상의 언어가 필요치 않은 성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일이 부여되거나 선택을 해야만 할 때 저 간단한 문장으로 응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을 청할 때도 간단한 문장으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 두 문장으로 시작해서 전개되는 광야의 40년 여정을 모세는 짐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부르심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바다에 빠질 때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주님은 지켜보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도 견뎌내야 합니다. 고통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이러한 믿음이 제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청합니다. — 글 | 김은숙 데레사

탈출기를 읽으며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옮겨온 저의 그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은 아버지, 어머니 집안이 모두 대대로 가톨릭 가정이었기에 유아세례를 받고 신앙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해 본 적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갈 곳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성당을 열심히 다녔고 성령묵상회를 통하여 새삼스럽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또 가깝게 만나 뵈게 되었습니다.

1974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50년 동안 저의 신앙생활에서의 하느님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느님, 항상 함께 하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느님, 저의 기도를 언젠가는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느님, 때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하며 울부짖으며 다가갔던 하느님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선 항상 한결같이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지만, 그 당시 처해 있는 저의 상황에 따라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다 도망갔다 하는 저의 모습... 꼭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며, 맨땅을 밟으며 바다를 건너게 해 주시고, 이집트인들과 싸워주시며 약속한 땅을 향하게 해주신 하느님. “주님! 저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바라며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은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 글 | 김경선 헬레나